

# 작년 신인왕 안신애, 올핸 상금왕

**KLPGA 하이원리조트컵 연장접전 끝 우승  
시즌 2승…2위 문현희·3위 서희경·이선화**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고 “상금 큰 대회에서 우승하겠다”던 안신애(20.비씨카드)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가장 상금이 많은 하이원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안신애는 15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골프장(파72.6천43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끓어 4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를 기록한 안신애는 문현희(27.하나금융그룹)와 함께 연장전에 돌입했고 18번홀(파4)에서 열린 연장 첫 번째 홀에서 파를 낚아 보이며 그친 문현희를 따돌렸다.

지난해 신인왕에 오른데 이어 지난 1일 끝난 히든밸리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던 안신애는 이번 시즌에 맨처음 2승 고지를 받은 선수가 됐다. 우승 상금은 무려 1억6000만원. 첫 우승 때 받은 상금 6000만원보다 1억원이 많다. 이에 따라 안신애는 다음 1위 뿐 아니라 상금 순위에서

도 1위(2억9933만원)로 도약했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2승 선수가 나온 것은 11번째 대회 만이다.

오전 8시부터 세미 샷간 방식으로 시작될 예정이던 2라운드가 많은 비 때문에 낮 12시25분 전 흙 샷간 방식으로 바뀌어 3번 홀에서 시작한 안신애는 마지막 3개 홀인 18, 1, 2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극적으로 문현희를 따라 잡았다.

연장전에서 문현희가 두번째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해 승기를 잡은 안신애는 문현희의 파 퍼트가 빗나간 뒤 침착하게 50cm 거리의 텁코언 퍼트를 넣어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2006년 10월 하이트컵에서 첫 우승을 경험한 이후 3년 10개월만에 정상 복귀를 노렸던 문현희는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시즌 세번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문현희는 연장전에서 그린 밖에서 친 세번째샷이 생각보다 짧게 떨어졌고 1.5m 파퍼트마저 살짝



벗나가 땅을 쳤다. 국내 무대에서 시즌 첫 우승을 노렸던 서희경은 16번홀(파4) 보기에 밭목이 잡힌 데다 18번홀에서 3.5m 버디 기회마저 살리지 못해 이선화(24)와 함께 공동 3위(6언더파 138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10m 다이빙 쇼

독일의 클라인 사사와 파트릭 하우스딩이 14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 수영 선수권대회 남자 10m 싱크로 다이빙에 출전, 고난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39개 금… 종합 4위 ‘대약진’

**남녀 초·중 정구 우승… 시·도분리이후 최고 성적**

**광주는 기대했던 기초 종목 부진 종합 15위 그쳐**



전국소년체전 결산

전 남 이  
14일 막을  
내리며 제 39  
회 전국소  
년체육대회  
에서 39개

의 금메달

승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4개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공기권총 여중부

단체전 우승에 이어 남중부 고은석

(삼계종)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힘

을 보탰다.

광주는 막판 순위 싸움을 위해 분

전했지만 지난해 6개의 금메달을 목

에 걸었던 수영, 정구, 레슬링, 블링에

서 1개의 금메달을 확보하는데 그치

며 목표 달성을 실패했다.

체전 마지막날 서식초가 광주에 마

지막 금메달을 선물했다. 역대 최강

멤버로 야구 결승에 진출한 서식초는

우천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지만 대

전 신승호와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종목에서 마지막 뒷심이 아쉬

웠다. 대회 마지막날 열린 초등부 남·여 배구 결승전에서 문정초와 치평초

가 서울팀들에게 패해 은메달을 거는

데 만족했다. 펜싱과 배드민턴 단체

결승에서도 은메달 2개를 추가하는 데 그치며 금액 캐기에게 실패했다.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전남은 불령 여중 이영승(곡성중), 수영 남중 김민웅(목포 하당중), 양궁 남중 최선(전남 체육중), 양궁 여중 임효정(전남 체육중), 역도 남중 신영용(고흥중), 인라인롤러 남주 김선영(광양제철중) 인라인롤러 여주 이수진(광양제철중) 등 2관왕도 7명이나 배출했다.

특히 불령의 이영승은 앞선 광주 체전과 전남 체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데 이어 이번 소년 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하며 한국 불령을 이끌어나갈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는 종목별 저변확대로 단체전 입상 티 수가 지난해 9개에서 11개 티으로 증가했다. 특히 육상에서는 3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며 선전했다.

대전에서 처진 이번 대회 대회 우승은 서울이 차지했으며 4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진주시를 비롯해 광주, 마산 등 경남 지역 일대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영건’ 노승열 톱 10 진입 할까

**PGA 챔피언십 3R… 공동 16위**

**‘디펜딩 챔프’ 양용은 컷 탈락**



한국의 영건 노승열(19-타이틀리스트)이 처음 출전한 시즌 마지막 메이저골프대회 PGA 챔피언십 샷에 날에도 상위권에 진입해 실력을 뽐냈다.

이번 대회 초청선수로 출전한 노승열은 1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워스콘신주 콜리의 웨슬링 스트레이즈 코스(파72.750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맞바꿔 타수를 줄이자 못해 상승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노승열은 정상급 선수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중간합계 5언더파 211타를 쳐 공동 16위에 자리했다.

장타자 낙 외트니(미국)가 6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두르며 13언더파 203타로 단독 선두에 나서 8타 뒤진 노승열이 우승까지 바라보기는 어려웠지만 톱 10 진입을 위한 발판은 확실히 닦아 놓았다.

유럽의 새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더스틴 존슨(미국)이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2위에서 와트니를 주격했다.

지난 3월 유럽-아시아투어가 공동 주최한 메이뱅크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우승했던 노승열은 올해 US오픈에서 공동 40위, 브리티시오픈에서 컷 탈락하는 등 메이저대회에서는 아직 주목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

던 최경주(40)는 2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컷을 통과한 뒤 3라운드에서도 1타를 줄여 중간합계 2언더파 214타를 적어냈다.

하지만 타이틀 방어에 나섰던 양용은(38)은 컷을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머렸다.

전날 안개로 경기가 늦게 시작되면서 2라운드를 끝내지 못했던 양용은은 속개된 경기에서 샷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합계 4오버파 148타를 적어내 컷 탈락했다.

중간합계 3언더파 213타로 공동 31위가 된 우즈는 올해도 메이저 우승컵을 차지하기는 힘들어졌다.

/연합뉴스

## 이지희 日 무대서 ‘광복절 우승 샷’

**JLPGA 시즌 첫승**

신고했다.

지난달 18일 스탠리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에서 안선주(23)와 연장 접전 끝에 패했던 이지희는 지난해 4월 라이프카드 레이디스 이후 1년4개월 만에 우승 소식을 전했다. 일본 투어에서 통산 13승째, 우승 상금 1천260만엔을 보태 이지희는 시즌 상금도 13위에서 5위(4천80만엔)로 경총 뛰었다. 상금 1위는 5천573만엔의 안선주다.

/연합뉴스

**‘수비달인’ 주세혁 결승행**

**코리아오픈탁구**

‘수비 달인’ 주세혁(삼성생명)이 2010 한국마사회컵 코리아오픈 탁구 대회에서 세계랭킹 2위인 팀 모브(독일)와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하고 결승에 올랐다.

전남은 대회 마지막날인 14일 정구 결승에서 남·여 초등부와 중등부 결

인 주세혁은 대회 마지막 날인 1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단식 준결승전에서 유럽의 강호 불을 4-1(11-8 11-9 11-7 6-11 12-10)으로 제압했다.

원손 세이크핸드의 불은 날카로운 포핸드 드라이브가 주특기로 한국 선수들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 ‘천적’, ‘벽’이라고 불려왔다.

주세혁도 지금까지 불에 이긴 적이 거의 없지만 올해 들어서는 한 번씩 승리를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서

왔다. 지난 3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폴스바겐컵 8강에서 4-1로 처음으로 불을 꺾었고 가장 최근 대결인 한달 전 일본오픈 준결승에서는 0-4로 쟁

다. 이날 경기는 주세혁의 압도적인 우세였다. 불의 원손 드라이브 공세를 절묘한 커트로 잘 막아낸 주세혁은 가볍게 첫 세트를 따낸 여세를 몰아 불의 실책을 유도하는 영리한 플레이로 2~3세트를 연달아 가져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월 25일(수)

▲광주주부체육회 7시30분 경기장

▲광주체육회 7시30분 경기장

▲광